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국도 1호선 입체교차로 주변 시가지에 노란 봄꽃이 피어 있다. 장성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곳에 가로화단을 조성해 주민 휴식처를 마련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바이럴 관광 마케팅 '눈길'

〈소비자 활용 전략〉

파워블로거 활동 등 입소문 유도
젊은층 겨냥 SNS 홍보 소득 창출

장성군이 SNS를 활용한 바이럴 관광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역 유명 관광지나 여행 코스 등을 인터넷 포털 및 블로거를 통해 적극 알리고 젊은층을 겨냥한 SNS 홍보에도 주력하는 분위기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소비자들의 힘을 빌려 제품이나 기업을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다. 소위 '입소문'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엔 SNS를 매개체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장성군은 대한민국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축령산 편백숲·백양사 등 고유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SNS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위한 파워블로거 방문 취재단 운영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카드뉴스 광고 ▲2040세대를 겨냥한 여행 전문 SNS 매체 홍보 ▲전국 단위 입소문 홍보를 위한 전국 맘카페 홍보글 게시 등이다.

최근에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파워블로거가 '장성의 봄 여행지 코스' 취재를 마쳤다.

군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절별로 꾸준히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 사계절 장성 방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특히 양질의 콘텐츠와 홍보글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꾸준히 조회되면 장성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득 증대 등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엔 점차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만큼,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장성 방문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핵심 농업 인력 육성한다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 모집…5월 4일까지 선착순

나주시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창조적 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2022년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품목 별 재배 기술, 유통 전망, 경영 요령 등 영농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5기 교육은 청년창업반(20명), 과수전정반(20명) 등 2개 과정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과수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청년창업반은 창업자 인생로드맵 목표 작성 방법, 1~3차 비즈니스 모델 작성·아이디어 발굴, 유통·마케팅 전략 등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창업을 위한 합리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다.

현재 영농 중이거나 농업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과수전정반은 과수 병해충 예방, 정지전정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에 주안점을 뒀다.

과수 전정 전문가의 지도 아래 동계과수관리·정지전정, 과수 생리·재배기술, 병해충 관리요령, 여름·겨울철 정지전정 실습 등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영농현장에서 총 15회(매주 화·목요일) 진행된다. 수강생은 오는 5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기간 나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시된 응시원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11일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 배신품종육성반 교육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job 생각 학교 팝아트 등 수강생 모집

함평군이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잡(job) 생각 학교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드로잉, 생활도자기, 팝아트, 바리스타, 기타클래스 등 5개 과정이다. 수강 인원은 각 강좌당 12명 이내로 총 60명을 모집한다. 강사료는 함평군에서 지원하며 재료비 등 일부는 수강생이 별도 부담한다.

강의는 5월부터 10월까지 손불, 학교, 엄다, 나산, 월야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며, 마을별로 개설하는 강좌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경찰, 침수·폭우 피해복구 현장 점검

화순경찰이 최근 상습침수지역과 과거 폭우 피해 복구 현장 등 4개소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 우려 취약지역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과 긴급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은경 화순경찰서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재해·재난 취약장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해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 보호에 힘써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화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장애인 건강증진 앞장 선다

'생활밀착형 반다비체육센터' 공모 선정…국비 30억 확보

강진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공간, 거리에 제약없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사무실 및 상담 프로그램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관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체육회와 장애유형별단체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운동장 일원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스포츠시설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강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훈 강진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군과 함께 협력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